

##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실태 비교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 지 훈

목포중앙고등학교

이 승 희\*

조선대 특수교육과

### 《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실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양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실태를 비교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일반계 고등학교 12개교 12학급, 실업계 고등학교 16개교 22학급) 담당교사 34명 전체였다. 설문지는 기초사항 9문항과 특수학급 운영실태관련 32문항(편성 및 운영 9문항, 행정 및 재정 11문항, 진로교육 12문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34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가운데 30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8.2%).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분명한 2부를 제외한 총 28부가 최종연구자료로 사용되었는데 연구자료는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순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편성 및 운영, 행정 및 재정, 진로교육별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실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특수학급의 편성 및 운영, 행정 및 재정, 진로교육의 순으로 논의하였고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실태, 통합교육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역사는 바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894년 Hall에 의해 맹교육이 시작된 이래 1900년 평양 정진소학교 내에 맹여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개설되었고, 1903년에 Moffet에 의해 평양 남 맹학교가 최초로 설립되

\* 교신저자(youletta@chosun.ac.kr)

었으며, 그 후 시각장애학교와 청각장애학교가 차츰 늘어나면서 정신지체학교, 지체부자유학교, 정서장애학교의 순으로 설립·확대되었고, 1970년대에 와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1980년대에 중학교 특수학급, 1990년대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여광웅, 2002), 2006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5,204개 특수학급(유치원 151학급, 초등학교 3,645학급, 중학교 986학급, 고등학교 422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와 같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수학급에 비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족하여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특수학교로 다시 진학하는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수가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5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 25일에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5조 제1항)라고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양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양적인 증가를 앞두고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양적으로 급성장한 특수학급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김영옥 외, 2005; 박승희, 1999). 예를 들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각 시·도 교육청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학급·학습도움실·특수학급(전일제, 시간제) 등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 학교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16개 시·도 교육청의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침의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을 뿐 학급 현장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0; 이유훈, 2005). 이러한 특수학급 문제점들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되기도 하는데 국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관련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학교급별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포함되어 있으며(예: 박동명, 2004) 다음으로 고등학교에 한정된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예: 서병국, 2003)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예: 김귀삼, 2002; 이원철, 2006)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구분없이 고등학교 특수학급(예: 강호철, 2001; 우종희, 2001; 정경숙, 2004; 최윤희, 2000)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 편의 연구(김옥순, 2005)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교육 실태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소수의 관련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비교한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하며 비교한 측면도 진로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실업계로 나뉘어 있으므로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운영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향후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적 증가를 예상할 때 그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양적 발전에 비례하는 질적 발전을 위한 자료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를 위해 고등학교 특수학급운영관련 선행연구들(예: 강호철, 2001; 김귀삼, 2002; 김옥순, 2005; 서병국, 2003; 우종희, 2001; 이원철, 2006; 최윤희, 2000)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측면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연구자주: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칭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①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편성 및 운영에 차이가 있는가?
- ②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행정 및 재정에 차이가 있는가?
- ③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교육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기 위해 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운영실태 비교를 위해 2006년 11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일반계 고등학교 12개교 12학급, 실업계 고등학교 16개교 22학급)(연구자주: 일반계 고등학교 12개교는 모두 공립이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1개교만 사립이고 나머지 15개교는 공

립이었음) 담당교사 34명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3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일반계 고등학교 11개교 11학급과 실업계 고등학교 16개교 19학급, 총 3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8.2%).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응답이 불분명한 2부(사립 실업계 고등학교 2개 학급)를 제외한 결과 공립 고등학교 특수학급 28부의 설문지가 최종연구자료로 사용되었는데(일반계 고등학교 11부, 실업계 고등학교 17부) 최종연구자료 설문지 응답자에 대한 기초사항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김옥순(2005), 박동명(2004), 그리고 이원철(2006)이 사용한 설문지를 근거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문항의 수정·보완절차는 광주지역 특수교사 3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1차 수정·보완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전화 또는 직접 면담하여 2차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는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성별, 연령, 교육경력, 수업시수 등), 특수학급의 편성 및 운영, 특수학급의 행정 및 재정, 특수학급의 진로교육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 4. 연구절차

먼저 설문지의 문제점과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지역의 특수교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재작성하였다. 재작성된 설문지를 특수교사 2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면담을 한 후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일반계 고등학교 12개교 12학급, 실업계 고등학교 16개교 22학급) 담당교사 34명 전체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배부된 34부의 설문지 중 30부(88.2%)가 회수되었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나타났다.

### 5.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은 기술통계(빈도와 백분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복응답한 문항의 경우에는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순위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기초사항(N=28)

기초사항	구분	일반계고(n=11)		실업계고(n=17)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	27.3	10	58.8
	여자	8	72.7	7	41.2
	계	11	100.0	17	100.0
연령	20대	1	10.0	2	11.8
	30대	3	30.0	1	5.8
	40대	5	50.0	7	41.2
	50대	1	10.0	7	41.2
	계	10 <sup>1)</sup>	100.0	17	100.0
교직 총경력	5년 이하	3	30.0	1	5.9
	6년 ~ 10년	1	10.0	1	5.9
	11년 ~ 15년	4	40.0	3	17.7
	16년 ~ 20년	1	10.0	3	17.7
	21년 ~ 25년	1	10.0	4	23.5
	26년 ~ 30년	0	0.0	5	29.3
계	10 <sup>1)</sup>	100.0	17	100.0	
특수교육 총경력	3년 이하	4	40.0	4	23.5
	4년 ~ 6년	1	10.0	2	11.8
	7년 ~ 9년	2	20.0	3	17.6
	10년 ~ 12년	2	20.0	2	11.8
	13년 ~ 15년	0	0.0	4	23.5
	16년 이상	1	10.0	2	11.8
계	10 <sup>1)</sup>	100.0	17	100.0	
소지자격	특수교사	5	45.5	5	29.4
	특수교사 + 일반교사	6	55.5	10	58.8
	일반교사	0	0.0	2	11.8
	계	11	100.0	17	100.0
주당 수업시수	10시간 이하	0	0.0	1	5.9
	11시간 ~ 15시간	2	18.2	3	17.6
	16시간 ~ 20시간	8	72.7	9	55.0
	21시간 ~ 25시간	1	9.1	3	17.6
	26시간 이상	0	0.0	1	5.9
계	11	100.0	17	100.0	
장애종별 학생수	시각장애	0	0.0	1	0.8
	청각장애	6	8.0	1	0.8
	정신지체	64	85.4	87	70.8
	지체부자유	1	1.3	2	1.6
	정서장애	0	0.0	6	4.9
	자폐장애	1	1.3	0	0.0
	언어장애	0	0.0	1	0.8
	학습장애	2	2.7	18	14.6
	학습부진	1	0.0	7	5.7
	건강장애	1	1.3	0	0.0
계	76 <sup>2)</sup>	100.0	123 <sup>2)</sup>	100.0	

<sup>1)</sup> 무응답 1명. <sup>2)</sup> 특수학급 학생수.

<표 2> 설문지 문항의 구성내용

구분	질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기초사항	성별, 연령, 교직 총경력, 특수교육 총경력, 소지자격, 주당 수업시수, 근무지의 설립유형, 근무지의 계열, 장애유형별 학생수	1- 9	9	
특수학급 운영형태	편성 및 운영	특수학급 운영형태, 부모교육 횟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형태, 개별화교육계획 활용 및 문제점, 일반교사와의 협력정도, 최우선 교육목표, 특수학급 운영 개선점	1- 9	9
	행정 및 재정	교직원 연수횟수, 특수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관심, 교수-학습자료의 구비정도와 활용도, 장학지도, 학교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 수업 외 업무 정도, 보조교사의 필요성, 보조교사 유무	10-20	11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중요도, 진로교육의 시수와 적절성, 진로교육 연수경험, 학부모 요구조사, 학생 개별평가, 직업교육 종목, 진로교육 내용, 진로교육시 어려운 점, 졸업생의 추수지도, 진로가능성 예측, 진로교육 개선점	21-32	12
계			41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특수학급의 편성 및 운영

##### 1) 특수학급의 운영형태

특수학급의 운영형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특수학급의 운영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시간제’라고 응답하였다.

<표 3> 특수학급의 운영형태(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전일제	0	0.0	0	0.0
시간제	11	100.0	17	100.0
계	11	100.0	17	100.0

2) 연간 부모교육 횟수

연간 부모교육 횟수에 대한 응답내용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연 1회가 6명(54.5%)으로 가장 많은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3회 이상이 6명(35.3%)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부모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명(17.7%)이 있었다.

<표 4> 연간 부모교육 횟수(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1회	6	54.5	5	29.4
2회	3	27.3	3	17.6
3회 이상	2	18.2	6	35.3
하지 않음	0	0.0	3	17.7
계	11	100.0	17	100.0

3)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표 5>에 보이듯이,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절충하여 편성한다’가 5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특수교사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에 10명(58.8%)이 응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면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좀 더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국민공통교육과정 중심	1	9.1	1	5.9
기본교육과정 중심	1	9.1	2	11.8
국민공통교육과정 + 기본교육과정	5	45.4	4	23.5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특수교사가 자율적 편성	4	36.4	10	58.8
기타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4) 개별화교육계획 활용 및 실시상의 문제점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및 활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및 활용이 특수학급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아서 긍정적이었다. 또한 개별화교육계획

실시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에 보이듯이 개별화교육계획 실시상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개별화교육계획의 형식성’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수의 과다’, ‘수업시수 및 잡무 과다’, ‘개별화교육계획 적용의 어려움’에 3명씩 골고루 응답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2순위로 ‘개별화교육계획 적용의 어려움’에 6명(20.7%), 3순위로 ‘학생수의 과다’에 5명(17.3%)이 응답하였다.

<표 6> 개별화교육계획 실시상의 문제점(N=45\*)

항목	일반계(n=16)		실업계(n=29)	
	빈도	%	빈도	%
학생수의 과다	3	18.7	5	17.3
수업시수 및 잡무 과다	3	18.7	4	13.8
개별화교육계획의 형식성	7	43.9	11	37.9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어려움	0	0.0	1	3.4
개별화교육계획 적용의 어려움	3	18.7	6	20.7
기타	0	0.0	2	6.9
계	16	100.0	29	100.0

\*중복응답한 결과임.

### 5) 수업과 생활지도에 있어서 특수교사의 도움 정도

장애학생의 원적학급 수업준비나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지도활동 또는 교육준비활동 등을 특수교사들이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7>과 같고 장애학생을 위해 원적학급의 생활지도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두 집단 모두 많은 응답을 하여 원적학급의 수업준비에 대해서는 특수교사들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표 8>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원적학급의 생활지도계획을 세우는 데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원적학급 수업준비 제공 정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0	0.0	1	5.9
대체로 그렇다	2	18.2	3	17.7
보통이다	2	18.2	5	29.4
별로 그렇지 않다	6	54.5	7	41.1
전혀 그렇지 않다	1	9.1	1	5.9
계	11	100.0	17	100.0

<표 8>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생활지도계획 도움 정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1	9.1	0	0.0
대체로 그렇다	6	54.5	9	55.0
보통이다	2	18.2	4	23.5
별로 그렇지 않다	2	18.2	4	23.5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6) 특수학급의 교육목표

특수학급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 적응 및 사회성 신장’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직업교육의 강화’에도 2명(11.8%)이 응답하여 일반계 고등학교(0%)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특수학급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기초 학력의 신장	2	18.2	2	11.8
생활 적응 및 사회성 신장	9	81.8	13	76.4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	0	0.0	0	0.0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0	0.0	2	11.8
기타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7)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을 1, 2, 3순위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4명, 36.3%)와 실업계 고등학교(8명, 47%) 모두 1순위로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가장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이해와 협조’에 또 다시 가장 많이(3명, 27.2%) 응답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에 가장 많이(5명, 29.4%) 응답하였다. 3순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각 문항에서 고른 응답이 나왔다.

<표 9>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N=84\*)

항목	일반계(n=33)						실업계(n=51)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행·재정적 지원	2	18.8	1	9.1	1	9.1	2	11.8	3	17.7	1	5.9
시설 및 학습자료의 공급	0	0.0	0	0.0	1	9.1	1	5.9	0	0.0	3	17.7
장학지도의 전문화	0	0.0	0	0.0	0	0.0	0	0.0	0	0.0	1	5.9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0	0.0	1	9.1	2	18.2	1	5.9	5	29.4	3	17.7
일반 교사와 학생의 이해와 협조	4	36.3	3	27.2	2	18.2	8	47.0	3	17.7	2	11.7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재구성	3	27.3	2	18.2	1	9.1	4	23.5	0	0.0	4	23.5
특수교사의 자질 향상	2	18.2	2	18.2	1	9.1	0	0.0	2	11.7	1	5.9
학교 경영자의 관심	0	0.0	2	18.2	2	18.2	1	5.9	4	23.5	2	11.7
기타	0	0.0	0	0.0	1	9.0	0	0.0	0	0.0	0	0.0
계	11	100.0	11	100.0	11	100.0	17	100.0	17	100.0	17	100.0

\*중복응답한 결과임.

## 2. 특수학급의 행정 및 재정

### 1) 특수교육에 대한 교직원 연수

특수교육에 대한 교직원 연수 횟수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연간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교육 연수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참여와 관심정도는 <표 11>에 보이듯이 ‘보통이다’에 두 집단 모두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일반계 고등학교 4명(36.4%), 실업계 고등학교 7명(41.2%)이 응답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특수교육에 대한 교직원 연수 횟수(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하지 않음	0	0.0	0	0.0
1회	9	81.8	10	58.8
2회	2	18.2	7	41.2
3회 이상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표 11> 특수교육 연수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관심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0	0.0	1	5.9
대체로 그렇다	4	36.4	6	35.3
보통이다	5	45.4	7	41.2
별로 그렇지 않다	2	18.2	3	17.6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2) 특수학급의 교수·학습자료

특수학급 교수·학습자료의 구비만족도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매우 충분하다’는 없었으나 ‘보통이다’ 이상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10명(90.9%)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13명(76.5%)이 응답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수·학습자료 구비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학급의 교수·학습자료 활용도는 <표 13>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80%이상 응답함으로써 자료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2> 특수학급 교수·학습자료 구비만족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충분하다	0	0.0	0	0.0
대체로 충분하다	3	27.3	7	41.2
보통이다	7	63.6	6	35.3
다소 부족하다	1	9.1	4	23.5
매우 부족하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표 13> 특수학급 교수·학습자료 활용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1	9.1	0	0.0
대체로 그렇다	8	72.7	15	88.2
보통이다	2	18.2	2	11.8
별로 그렇지 않다	0	0.0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3) 교육청 장학지도의 효과

교육청 장학지도의 효과를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이다’에 7명(63.6%), ‘별로 효과가 없다’에 4명(36.4%)이 응답했

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보통이다’에 6명(35.3%), ‘별로 효과가 없다’에 7명(41.1%)이 응답함으로써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교육청 장학지도의 효과(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효과가 있다	0	0.0	0	0.0
대체로 효과가 있다	0	0.0	2	11.8
보통이다	7	63.6	6	35.3
별로 효과가 없다	4	36.4	7	41.1
전혀 효과가 없다	0	0.0	2	11.8
계	11	100.0	17	100.0

#### 4)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학교행정가와 학교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정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는 ‘매우 이해가 높다’에 1명(9.0%), ‘대체로 이해한다’에 5명(45.5%), ‘보통이다’에 5명(45.5%)이 응답한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체로 이해한다’에 7명(41.2%), ‘보통이다’에 7명(41.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에 3명(17.6%)이 응답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행정가와 학교장의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추진 협조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표 16>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보통이다’이상 100% 응답하고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3명(27.3%), ‘대체로 그렇다’에 6명(54.5%), ‘보통이다’에 2명(18.2%)이 응답한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에 2명(11.8%), ‘대체로 그렇다’에 9명(52.9%), ‘보통이다’에 6명(35.3%)이 응답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의견교환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보통이다’이상 80%이상이 응답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많았으나 ‘대체로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하고 있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36.4%인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64.7%를 차지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교행정가와 학교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정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이해가 높다	1	9.0	0	0.0
대체로 이해한다	5	45.5	7	41.2
보통이다	5	45.5	7	41.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0	0.0	3	17.6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표 16> 학교행정가와 학교장의 업무추진 협조정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3	27.3	2	11.8
대체로 그렇다	6	54.5	9	52.9
보통이다	2	18.2	6	35.3
별로 그렇지 않다	0	0.0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표 17>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의견교환정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잘 한다	0	0.0	2	11.8
대체로 잘 한다	4	36.4	9	52.9
보통이다	5	45.4	3	17.6
별로 안 한다	1	9.1	2	11.8
전혀 안 한다	1	9.1	1	5.9
계	11	100.0	17	100.0

5) 특수학급관련 업무처리의 시간적 부담정도

수업 외의 특수학급관련 업무처리에 느끼는 시간적 부담정도는 <표 18>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어느 정도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특수학급관련 업무처리의 시간적 부담정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2	18.2	2	11.8
대체로 그렇다	2	18.2	6	35.3
보통이다	6	54.5	7	41.1
별로 그렇지 않다	1	9.1	2	11.8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 6) 보조교사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5.5%가 응답한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70.6%가 응답을 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교사의 유무에 대해서는 <표 20>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조교사가 있는 학급이 5학급(45.5%), 보조교사가 없는 학급이 6학급(54.5%)인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보조교사가 있는 학급이 4학급(23.5%), 보조교사가 없는 학급이 13학급(76.5%)으로 나타나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보조교사가 없는 학급이 있는 학급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보조교사 유무의 비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1 정도인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1:3 정도로 나타나 보조교사가 없는 학급의 비율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9> 보조교사의 필요성(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3	27.3	2	11.8
대체로 그렇다	2	18.2	10	58.8
보통이다	2	18.2	1	5.9
별로 그렇지 않다	4	36.3	3	17.6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1	5.9
계	11	100.0	17	100.0

<표 20> 보조교사의 유무(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있다	5	45.5	4	23.5
없다	6	54.5	13	76.5
계	11	100.0	17	100.0

## 3. 특수학급의 진로교육

### 1) 진로교육의 중요성

학생들의 진로교육 중요성에 대해서는 <표 21>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매우 중요하다’와 ‘다소 중요하다’에 100% 응답함으로써 두 집단 모두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매우 중요하다’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10명(90.9%)이 응답한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11명(64.7%)이 응답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진로교육의 중요성(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중요하다	10	90.9	11	64.7
다소 중요하다	1	9.1	6	35.3
보통이다	0	0.0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0	0.0	0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0	0.0
계	11	100.0	17	100.0

2) 진로교육의 주당시수와 적절성

특수학급의 진로지도 주당시수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나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주당시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서 전문교과 시간에 장애학생들이 통합되어 진로지도를 받으므로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시 진로교육의 주당시수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적게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로지도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23>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별로 적절하지 않다’에 1명(9.1%)이 응답한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와 ‘전혀 적절하지 않다’에 각각 2명(11.8%)씩 응답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수학급의 진로지도 시간을 다소 부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진로지도의 주당시수(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실시하지 않는다	0	0.0	0	0.0
1시간 ~ 3시간	3	27.3	9	52.9
4시간 ~ 6시간	3	27.3	5	29.4
7시간 ~ 9시간	3	27.3	3	17.7
10시간 이상	2	18.1	0	0.0
계	11	100.0	17	100.0

&lt;표 23&gt; 진로지도 시간의 적절성(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적절하다	0	0.0	0	0.0
대체로 적절하다	7	63.6	7	41.2
보통이다	3	27.3	6	35.2
별로 적절하지 않다	1	9.1	2	11.8
전혀 적절하지 않다	0	0.0	2	11.8
계	11	100.0	17	100.0

### 3) 진로교육의 준비

진로교육 실시 전 교사들의 준비와 관련하여 진로교육관련 연수여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24>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연수경험이 '있다'에 7명(63.5%), '없다'에 4명(36.4%)이 응답한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연수경험이 '있다'에 6명(35.3%), '없다'에 11명(64.7%)이 응답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수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 실시 전 교사들의 준비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요구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다'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5명(45.5%)이 응답한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11명(64.7%)이 응답함으로써 진로교육을 위한 학부모 요구조사는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교육 실시 전 교사들의 준비와 관련하여 적성검사 등을 통한 학생들의 개별평가 실시여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26>에 보이듯이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각각 7명(63.6%)과 11명(64.7%)이 응답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과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진로교육 실시 전에 적성검사와 같은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특수학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4&gt; 진로교육관련 연수여부(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있다	7	63.6	6	35.3
없다	4	36.4	11	64.7
계	11	100.0	17	100.0

<표 25> 학부모 요구조사 실시여부 (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실시하지 않는다	5	45.4	11	64.7
1회 실시	4	36.4	4	23.5
2회 실시	2	18.2	2	11.8
계	11	100.0	17	100.0

<표 26> 학생 개별평가 실시여부(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0	0.0	1	5.9
대체로 그렇다	2	18.2	4	23.5
보통이다	2	18.2	1	5.9
별로 그렇지 않다	5	45.4	7	41.2
전혀 그렇지 않다	2	18.2	4	23.5
계	11	100.0	17	100.0

4) 진로교육의 내용

제시된 14개의 직업교육 종목 중 특수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총 104개의 응답이 나왔는데 <표 27>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종목은 ‘컴퓨터’(일반계 16.4%; 실업계 20.4%)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나온 종목은 ‘공예’(일반계 14.5%; 실업계 16.3%)였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 차이점도 있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으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종목(편물, 자수)이 있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종목(농업, 공업)도 있었으며 두 집단에서 각각 1회씩 응답된 ‘기타’에서도 차이(일반계는 ‘청소’, 실업계는 ‘재봉·바느질’)가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시하는 진로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3가지씩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표 28>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기본 생활습관’, ‘대인관계-사회성 훈련’, ‘기초 작업기술’의 3항목에 집중되어 있었다.

5) 진로교육시 가장 힘든 점

특수학급 진로교육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3가지씩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표 29>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부족’, ‘산업체 및 사회전반의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 ‘학생의 취업의욕 및 인내심 부족’의 3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표 27> 직업교육 종목(N=104\*)

항목	일반계(n=55)		실업계(n=49)	
	빈도	%	빈도	%
목공	1	1.8	1	2.0
조립	4	7.3	4	8.2
편물	2	3.6	0	0.0
자수	3	5.5	0	0.0
도예	8	14.5	3	6.1
공예	8	14.5	8	16.3
컴퓨터	9	16.4	10	20.4
농업	0	0.0	6	12.3
원예	3	5.5	4	8.2
미술	6	10.9	2	4.1
공업	0	0.0	1	2.0
십자수	1	1.8	2	4.1
제과·제빵	6	10.9	5	10.2
조리	3	5.5	2	4.1
기타	1	1.8	1	2.0
계	55	100.0	49	100.0

\*중복응답한 결과임.

<표 28> 가장 중요시하는 진로교육 내용(N=84\*)

항목	일반계(n=33)		실업계(n=51)	
	빈도	%	빈도	%
기본 생활습관	8	24.2	16	31.4
대인관계-사회성 훈련	9	27.3	14	27.4
기초 작업기술	9	27.3	16	31.4
예·체능 교육	1	3.0	0	0.0
직업 탐색 및 인식	4	12.1	5	9.8
여가 기술	2	6.1	0	0.0
기타	0	0.0	0	0.0
계	33	100.0	51	100.0

\*중복응답한 결과임.

### 6) 졸업생의 추수지도

특수학급 졸업생의 추수지도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30>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반계 고등학교는 11학급(63.6%)이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1개 학급(5.9%)이 아직 졸업생이 없어 졸업생 추수지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졸업생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4학급과 실업계 고등학교 16개 학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4학급 중 1개 학급(25.0%)이 추수지도를 하고 있는 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16개 학급 중 9개 학급(56.3%)이 추수지도를 하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추수지도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진로교육시 가장 힘든 점(N=82\*)

항목	일반계(n=33)		실업계(n=51)	
	빈도	%	빈도	%
학생의 취업의욕 및 인내심 부족	5	15.2	8	15.7
학부모의 취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	3	9.1	5	9.8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부족	8	24.2	7	13.7
자격증 있는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부족	1	3.0	5	9.8
취업알선 곤란	3	9.1	7	13.7
산업체 및 사회전반의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	7	21.2	9	17.7
초·중·고 학교의 연계성 있는 교육 부족	2	6.1	5	9.8
자료정보 부족	2	6.1	4	7.8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 부족	1	3.0	0	0.0
취업 및 실습 산업체 부족	0	0.0	1	2.0
기타	1	3.0	0	0.0
계	33	100.0	51	100.0

\*중복응답한 결과임.

<표 30> 졸업생의 추수지도(N=28)

항목	일반계(n=11)		실업계(n=17)	
	빈도	%	빈도	%
졸업 후 3년까지 하고 있다	0	0.0	1	5.9
졸업 후 2년까지 하고 있다	1	9.1	2	11.8
졸업 후 1년까지 하고 있다	0	0.0	6	35.3
필요성은 느끼지만 못하고 있다	3	27.3	7	41.1
아직 졸업생이 없다	7	63.6	1	5.9
계	11	100.0	17	100.0

### 7) 진로가능성 예측

학년에 상관없이 특수학급 학생들의 진로가능성 예측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가정'이 1순위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두 집단간에 순위의 차이를 다소 보였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취업'에 대한 전망이 일반계 고등학교(5순위)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2순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31> 학생들의 진로가능성 예측(N=199\*)

항목	일반계(n=76)			실업계(n=123)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대학 진학	3	3.9	6	7	5.7	6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13	17.1	4	15	12.2	5
복지관	18	23.7	1	18	14.6	3
직업 훈련원	16	21.1	3	16	13.0	4
취업	8	10.5	5	32	26.0	2
가정	18	23.7	1	34	27.7	1
기타	0	0.0	·	1	0.8	7
계	76	100.0	·	123	100.0	·

\*중복응답한 결과임.

8) 진로교육 개선점

진로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을 3가지씩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표 32>에 보이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을 위한 고용구조의 개선’의 3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표 32> 진로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될 점(N=84\*)

항목	일반계(n=33)		실업계(n=51)	
	빈도	%	빈도	%
전반적인 행정정책의 변화	3	9.1	6	11.7
학부모의 태도변화	2	6.1	3	5.9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7	21.2	13	25.6
교육과정의 개선	2	6.1	2	3.9
시설 및 전문교사 확보	4	12.1	6	11.7
사회인식 변화	3	9.1	2	3.9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5	15.1	11	21.6
장애인을 위한 고용구조의 개선	4	12.1	8	15.7
학교장의 협조	2	6.1	0	0.0
고등교육기회의 협조(대학진학)	1	3.0	0	0.0
계	33	100.0	51	100.0

\*중복응답한 결과임.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1) 특수학급의 편성 및 운영

특수학급의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의 통합교육의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간 부모교육 횟수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회~3회 이상 모두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82.3%는 1회~3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나머지 17.7%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었다.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절충하여 편성한다’에 가장 많이(45.4%) 응답한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특수교사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에 58.8%의 가장 많은 교사가 응답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좀 더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

반계 고등학교보다 대학입시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특수학급 교육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개별화교육계획 활용 및 실시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의 활용이 특수학급 운영에 주는 도움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개별화교육계획 실시상의 문제점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의 형식성’을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별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 노안심(2007)에 의하면 전남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184명에게 “효율적인 개별화교육계획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양식의 개발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질문한 결과 184명 중 81명(44.0%)은 ‘매우 중요하다’에 72명(39.1%)은 ‘대체로 중요하다’에 응답함으로써 개별화교육계획의 형식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장애학생 수업준비 및 생활지도계획에 대해 특수교사가 제공하는 도움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수업준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 생활지도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학생들의 물리적·사회적 통합에는 특수학급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교수적 통합에서는 담당교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므로 특수교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특수교사들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담당하는 일반교사들의 인식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수학급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생활 적응 및 사회성 신장’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진로·직업교육의 강화’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응답자가 없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11.8%가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1순위로 가장 많이 꼽고 있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인식개선이 여전히 가장 시급한 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교사들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및 일반학생들의 장애이해·장애체험 교육 등을 통하여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학급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간에 유사점(예: 특수학급의 운영형태, 개별화교육계획 활용 및 실시상의 문제점 등)과 차이점(예: 연간 부모교육 횟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점이라 하더라도 두 집단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예: 개별화교

육계획 활용 및 실시상의 문제점)가 있으며 차이점에도 우열적인 차이(예: 연간 부모교육의 횟수)와 학교유형(일반계/실업계)에 따른 특성상의 차이(예: 특수학급의 교육목표)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세심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특수학급의 행정 및 재정

특수교육에 대한 교직원 연수와 관련하여 그 횟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연간 1회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 연수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참여와 관심정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교사들의 참여와 관심정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가장 심각하게 꼽고 있어 일반교사들의 직무 연수와 자격연수를 통하여 일반교사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일반교사들의 참여와 관심정도가 낮다면 그 실현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학급 교수·학습자료와 관련하여 활용도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비만족도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구비된 교수·학습자료는 대체로 잘 활용되고 있으나 미비된 교수·학습자료도 있다는 것이므로 교수·학습자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와 미비된 교수·학습자료를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장학지도의 효과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청 장학지도의 전문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행평가와 학교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추진 협조정도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좀 더 긍정적인 반면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의 의견교환정도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실업계 고등학교의 행정가와 학교장을 대상으로는 통합교육 실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는 협력교수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특수학급관련 업무처리의 시간적 부담정도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수업 외의 특수학급관련 업무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간적 부담이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 및 자료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수학급관련 행정적 업무처리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교사와 관련하여 보조교사의 필요성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서 더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가 없는 학급의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보조교사 확보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온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보조교사 충원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학급의 편성 및 운영과 마찬가지로 행정 및 재정에 있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간에 유사점(예: 특수교육에 대한 교직원 연수, 교육청 장학지도의 효과, 특수학급관련 업무처리의 시간적 부담정도 등)과 차이점(예: 학교행정가와 학교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정도와 업무추진 협조정도, 보조교사 등)이 나타났으며 유사점에도 두 집단 모두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교육청 장학지도의 효과, 특수학급관련 업무처리의 시간적 부담정도 등)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차이점에 있어서는 편성 및 운영과는 달리 학교유형에 따른 질적 차이보다는 주로 우열적인 양적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경우(예: 학교행정가와 학교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정도와 업무추진 협조정도, 보조교사 등)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특수학급의 행정 및 재정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특수학급의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진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90.9%가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해 실업계 고등학교(64.7%)보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진로교육의 주당시수와 관련하여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주당시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서 전문교과 시간에 장애학생들이 통합되어 진로지도 받으므로 특수학급의 교육과정편성시 진로지도 주당시수를 더 적게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수학급의 진로지도 시간을 다소 부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문교과 시간에 특수학급 학생들이 통합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교육의 준비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36.4%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64.7%가 진로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45.4%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64.7%가 진로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요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63.5%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64.7%가 적성검사 등을 통한 학생들의 개별평가를 ‘별로 실시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진로교육의 중요성에서 두

집단 모두 진로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전 준비에서는 다소 부족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교육이 중요한 만큼 실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도 향상 방안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진로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실시되는 직업교육 종목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종목은 ‘컴퓨터’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실시되는 종목은 ‘공예’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두 집단간에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다는 차이점도 있었다. 한편 가장 중요시하는 진로교육 내용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기본 생활습관’, ‘대인관계-사회성 훈련’, ‘기초 작업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진로교육시 가장 힘든 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부족’, ‘산업체 및 사회전반의 취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 ‘학생의 취업의욕 및 인내심 부족’의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 학생의 진로교육을 학교가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졸업생의 추수지도와 관련하여 졸업생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비교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추수지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한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년에 상관없이 특수학급 학생들의 진로가능성을 예측하게 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가정’이 1순위로 나타나 장애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의 가능성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5순위인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2순위로 나타나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진로교육 개선점에 있어서는 진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을 위한 고용구조의 개선’의 세 가지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같은 점들도 앞서 진로교육시 가장 힘든 점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해결을 학교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이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보이듯이, 특수학급의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간에 유사점(예: 진로교육의 중요성, 진로교육시 가장 힘든 점 등)과

차이점(예: 진로교육 주당시수, 졸업생의 추수지도 등)이 있었다. 유사점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예: 진로교육시 가장 힘든 점)도 있었으며 차이점에 있어서는 우열적인 차이(예: 진로교육 주당시수)와 학교유형(일반계/실업계)에 따른 특성상의 차이(예: 졸업생의 추수지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진로교육에 있어서의 차이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화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기 전에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기 전에 전국규모의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모두 진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들의 준비도나 사회적 여건 등에서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므로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넷째,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시여부는 학교행정가의 역량에 의해 많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특수학급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호철 (2001).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실태와 교사의 인식 수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서울: 저자.
- 국립특수교육원 (2000).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경기도 안산: 저자.

- 김귀삼 (2002).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옥 · 김원경 · 박화문 · 석동일 · 윤점룡 · 정재권 · 조인수 (2005). **특수교육학**(제3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옥순 (2005).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교육의 실태 비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안심 (2007). 전남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동명 (2004). 우리나라 학교 급별에 따른 특수학급 운영실태의 비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승희 (1999). 2000년대 한국 특수학급 정체성과 발전방향: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관계구도의 진전. **특수교육학연구**, 33(2), 35-66.
- 서병국 (2003).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여광응 (2002).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의 설립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 **특수교육학연구**, 37(4), 55-76.
- 우중희 (2001).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원철 (2006). 경기도 실업계 고등학교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교사 인식. 석사학위 청구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훈 (2005). **특수교육과정 운영론**.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정경숙 (2004).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직업실태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윤희 (2000).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준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사들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A Comparison on Current Operation Status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between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Area of Gwangju and Jeonnam

**Ahn, Jihoon**

Mokpojoongang High School

**Lee, Seunghee**

Chosun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between gener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To do thi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4 teachers who were in charge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at general high schools or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area of Gwangju and Jeonnam(12 special education classes at 12 general high schools; 22 special education classes at 16 vocational high schools). Thirty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analyzed to answer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 ①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urriculum and operation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between gener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 ②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between gener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 ③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areer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between gener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order of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and some consider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general high schools, vocational high schools, special education classes, operation status, inclusive education

---

논문 접수: 2007. 8. 4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9. 21